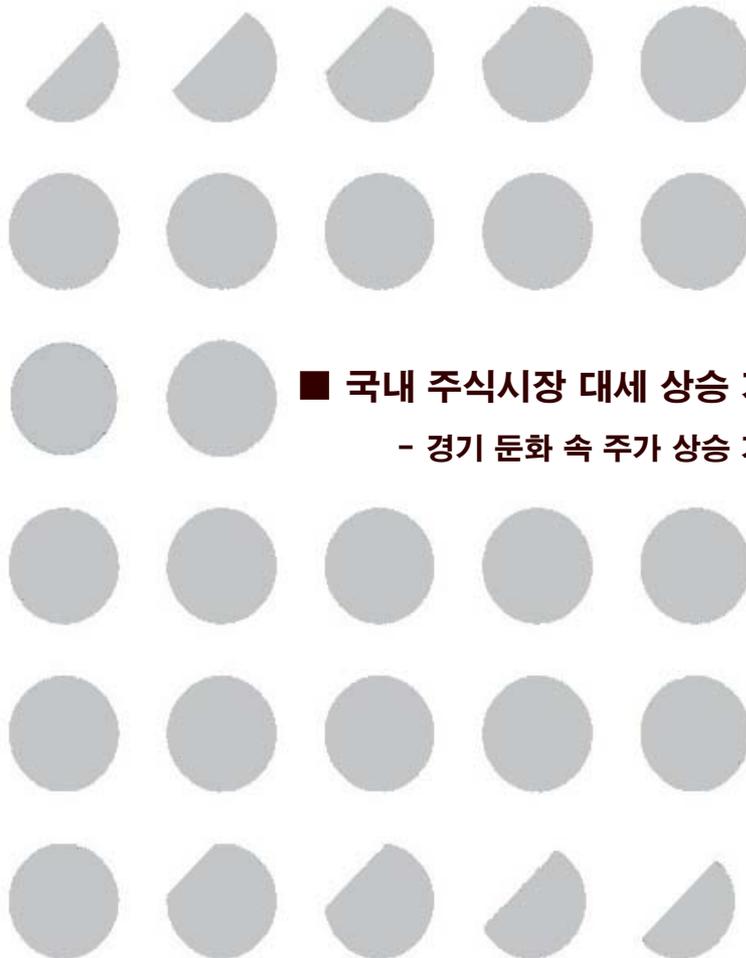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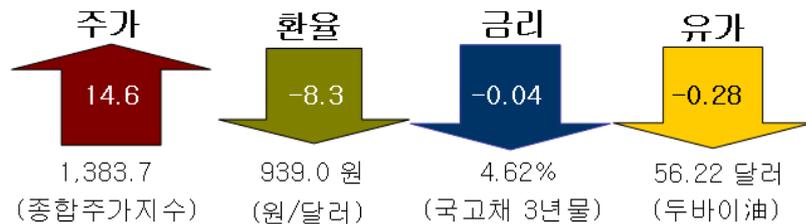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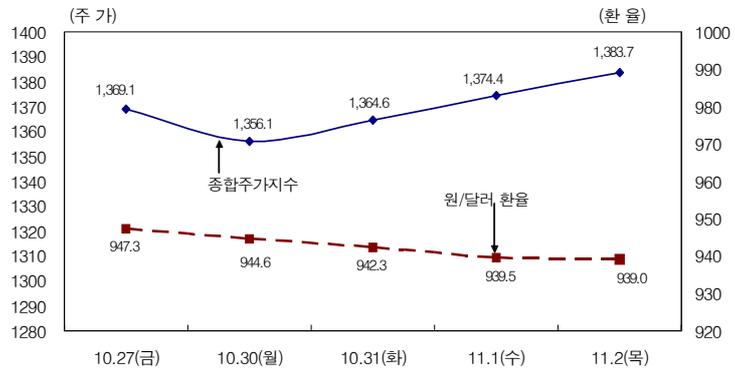
# 韓國經濟週評



■ 국내 주식시장 대세 상승 가능한가?  
- 경기 둔화 속 주가 상승 가능성

##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0.27~11.2)

Better than  
the Best!



##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 1

- 국내 주식시장 대세 상승 가능한가?
  - 경기 둔화 속 주가 상승 가능성 ..... 1

주간 경제 동향 ..... 11

- 실물 부문 : 착시효과가 포함된 산업활동 호조 ..... 11
- 금융 부문 : 원/달러 환율 930원대로 하락 ..... 12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 유 병 규 경제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금융 분석팀 : 박 덕 배 연구위원 (3669-4009, dbpark@hri.co.kr)

## Executive Summary

### □ 국내 주식시장 대세 상승 가능한가? - 경기 둔화 속 주가 상승 가능성

최근에 자본시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북핵문제' 등 대외 충격이 없는 한 2007년 증시는 국내 경기 둔화 속에서 '나홀로 호황'을 누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주식시장의 단기수급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2007년 시장금리는 저금리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침체 등에 따르는 기업과 가계의 자금수요 둔화, 미국의 금리 인상 중단 등이 부각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주식시장 대기자금 성격의 MMF와 적립식펀드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주식형펀드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 요인이다. 또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호재다. 2006년 국내 부동산시장은 거래 빈곤 속에서 가격증가율이 크게 둔화되다가 최근 다시 불안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억제 의지 등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부동산이 안전 자산이라는 인식이 점차 약화되고 있어 시중 자금이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제도적으로도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2007년 자본시장관련 법률을 통합하는 '자본시장통합법'이 도입되면 우리나라에서도 금융회사가 은행·보험을 제외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본격 투자은행업 시대가 도래될 전망이다. 이는 증권투자의 다양성을 높여 주식 수요 기반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의 체질 개선으로 기업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경기가 침체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의 경영지표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경기상황에 따라 기업들의 매출액이 크게 변동하나, 수익성을 나타내는 매출액경상이익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들도 이미 선진국 수준을 넘어서 있다. 그리고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현재 80년대 일본과 90년대 미국에서 나타났던 인구구조상 주가의 '대세 상승' 여건도 조성되고 있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화에 대비한 자산축적 과정에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한국도 현재 40~50대의 베이비붐 세대가 경제의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어 주식수요 기반이 강화되고 있다.

더욱이 비록 거래소 주가가 외환위기 전과 비교하여 크게 올랐지만 국내 주가는 여전히 저평가 되어 있다. 우리나라 주가는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감자(減資)와 유·무상 증자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성장기반이 붕괴된 후 아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2002년말 110조원이었던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장 자본금(=상장주식수×액면가)이 주가가 가장 높았던 2005년 하반기에 오히려 80조원대로 줄어든 것이 이를 잘 증명한다. 주가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수정주가평균(감자, 유무상 증자 등 불안 요인을 감안하여 수정한 주가)은 외환위기 전보다 오히려 낮는데, 이는 국내 주식시장은 아직 외환위기 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국내 주식시장은 앞서 본 자본시장의 긍정적인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국내 경제상황과 관계없는 강한 상승세가 가능할 수 있다. 만일 북핵 문제만 조기에 무난히 해결될 경우 시장의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이 가속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주가가 '대세상승론' 국면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기 위해 자본시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정책당국은 먼저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개인의 자금이 실제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도록 '자본시장통합법'을 예정대로 시행하여 자본시장을 획기적으로 개혁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과거와 같이 증시 활황기에 기업의 지나친 유상증자 등으로 주식의 초과공급 현상이 발생하여 주식시장의 탄력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셋째, 내국인 주도로 자본시장에 긍정적인 자금흐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은 국내 투자자 욕구에 부합하는 신상품 개발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국내 주식시장 대세 상승 가능한가? - 경기 둔화 속 주가 상승 가능성 >

2006  
회화

- ❖ 국내 주식시장, 글로벌 증시 호조에 불구하고 탄력을 잃은 모습을 지속
  - 최근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복핵시대'가 불거져 나옴
  - 2007년 경제성장률은 2006년의 5% 내외보다 낮은 4%대 초반수준으로 전망
- ❖ 하지만 2007년 주식시장의 주변 환경이 매우 긍정적으로 흐르고 있어 '나홀로 호황'을 누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주주  
면  
10년  
전  
회화

- ❖ 주식시장의 단기 수급여건이 빠르게 개선
  - 시장금리,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과 가계의 자금수요 둔화 등으로 저금리 수준을 지속
  - 불안한 주택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부동산 투자의 위험성 증가
  -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지배하던 국내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인식 변화되면서 적립식펀드 형태의 주식형펀드가 빠르게 증가
- ❖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자본시장이 크게 활기를 띠 가능성
  - 금융투자회사가 은행, 보험을 제외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본격 투자은행업 시대의 도래 전망
- ❖ 기업 가치 상승
  -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을 나타내는 매출액경상이익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들도 빠르게 개선
- ❖ 주가 대세 상승을 경험한 미국과 일본의 당시 자본시장 상황과 유사
  - 80년대 일본, 90년대 미국, 베이비부머들의 고령화에 앞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
- ❖ 주가의 저평가
  - 비록 KOSPI는 외환위기 전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에 있지만 주가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수정주가평균은 외환위기 전보다 아직 낮은 상태

정책  
과제

- ❖ 주가의 '대세 상승론' 국면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여 자금의 선순환 구조로 유도하고 자본시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등 자본시장 개혁이 요구
  - 지나친 유상증자 등으로 주식의 초과공급으로 주식시장의 탄력성 상실 방지
  - 금융기관은 투자자 욕구에 부합하는 신상품 개발 능력을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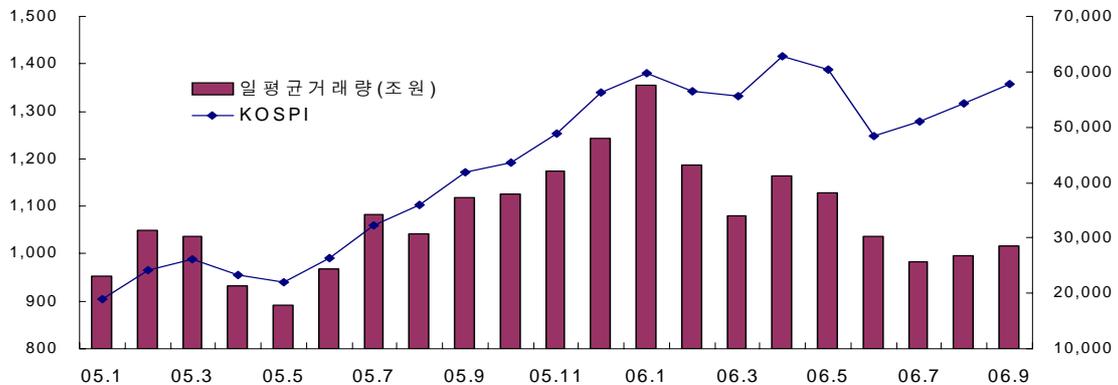
□ 국내 주식시장 대세 상승 가능한가? - 경기 둔화 속 주가 상승 가능성

1. 활기 잃은 2006년 국내 주식시장

○ 2006년 중 국내 증시는 글로벌 증시 호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비해 탄력을 잃은 모습을 지속하고 있음

- 2006년 상반기 중 국내 증시는 글로벌 증시 호조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급등에 대한 조정, 원/달러 환율 급락, 고유가, 금리 인상 추세,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하락세를 지속함
- KOSPI는 4월 한때 1,400P를 회복하였으나, 곧이어 급락하면서 지난해 말 대비 10.2%나 하락하였고, 유가증권 시장의 일평균거래량도 지난해 말 보다 절반이하로 떨어졌음<sup>1)</sup>
- 상반기중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3조 9,468억원, 개인은 1조 2,248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기관은 3조 1,114억원을 순매수하였음

< 최근의 증시 추이 >



자료 : 증권거래소

- 그러나 하반기 들어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북핵문제'가 불거져 나오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적립식편드의 꾸준한 증가세에 의하여 큰 폭의 조정 과정 없이 글로벌 증시와 동조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하반기 KOSPI는 6월 평균 1,250 수준에서 10월 1,350대로 100p 상승하였으나, 거래량은 아직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1) KOSDAQ의 경우 2005년 10월 월평균 712.39P를 기록하였으나 '황우석 사태' 이후 급락, 2006년 7월에는 557.66P를 기록한 이후 소폭 반등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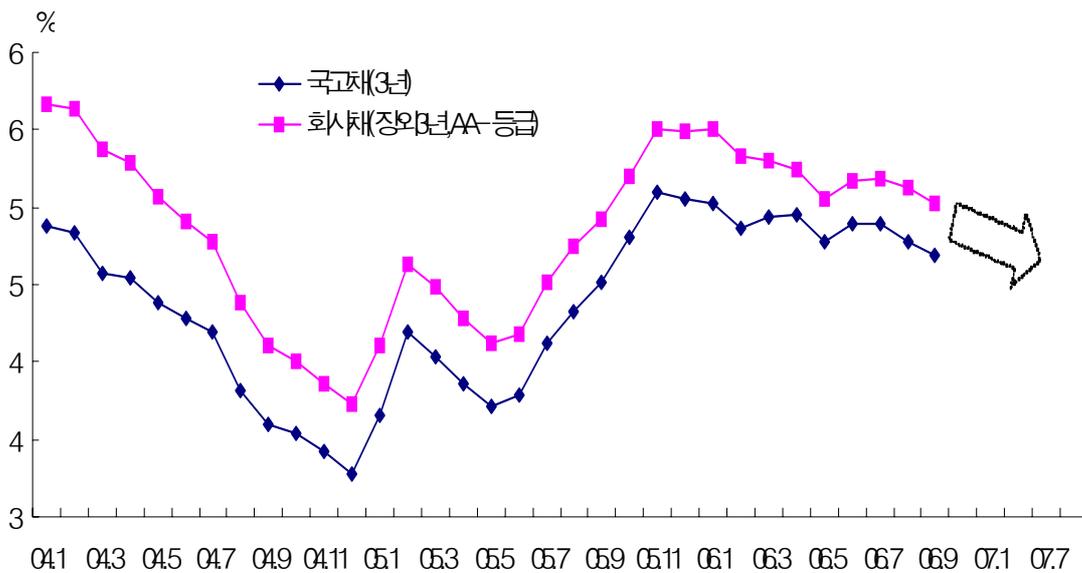
- 최근 외국인의 지속적인 순매도에도 현재 주식시장이 무너지지 않고 호조를 지속하는 것은 적립식펀드의 힘에 의한 것으로 판단
- 2007년 중 국내 증시는 대내외 경제 환경이 우호적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자본시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고려할 경우 '나홀로 호황'을 누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2007년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기의 동반 하강, 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 지속, 국제 유가 상승세 유지, 남북 관계 불안감 증대 등이 전망되고, 대내적으로는 대선 정국에 의한 정치 사회 불안 증폭 등이 예상
  - 2007년 세계경제는 미국 경기 하강이 심화되고 중국, EU, 일본 경기도 하강 국면으로 진입하는 세계 경기의 동반 하강(Global Recession) 현상이 우려됨
  - 국제 유가도 세계 경기 하강에 따르는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동 정세 불안, OPEC 생산 능력 확충 미흡, 일부 산유국 정정 불안 등으로 상승 압력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2007년 경제성장률은 대외 여건 악화로 외수부문의 성장 기여율이 낮아질 것으로 보여, 2006년의 5% 내외보다 낮은 4%대 초반이 될 것으로 전망
    - 더욱이 최근 북한의 핵실험 여파로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실물경제의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가 본격 수면위로 부상할 경우 장기불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 이처럼 국내 경제가 어둡게 전망되고 있지만 주식시장을 둘러싼 주변 환경은 매우 긍정적으로 흐르고 있어 2007년 주식시장은 '나홀로 호황'을 누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최근 몇 년간 저금리 기조 하에서 부동산시장이 급등한 바와 같이 주식시장도 외국인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내의 풍부한 시중자금에 의해 예상 외의 호황을 누릴 수 있음

2. 자본시장의 5대 긍정적 환경 변화

① 저금리 기조 지속

- 2007년 시장금리는 하락 또는 안정요인이 우세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
  -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통화당국의 긴축의지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통화당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점점 축소되고 있음
  - 물가수준도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원화강세, 경기둔화 등으로 인한 총수요 감소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
  - 실물경기와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과 가계의 투자 및 주택자금 수요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
  - 과잉유동성이 심한 EU와 일본 등은 2007년에도 정책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높지만 미국이 2004년 이후 지속한 금리인상을 마무리할 가능성
  
- 이에 따라 시장금리는 하락세가 우세하게 작용하여, 2007년도 보다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2007년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은 연평균 4.2~4.5% 수준을 기록할 전망

< 시중금리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② 위험성이 높아진 부동산 투자

- 2006년 들어 정부의 부동산 버블 경고, 통화당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국내 부동산시장은 거래 빈곤 속에서 주택 가격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다가 판교분양 발표 이후 다시 불안한 상승세를 지속
  - 여름철 비수기의 계절적 요인과 재건축규제 및 세제강화 등 정부의 부동산관련 규제가 시행되는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거래가 극히 부진
  - 대신 가을 이사철을 맞아 수도권 일대에 매매 보다 전세대란이 일어남
  - 신도시 추가 발표, 고분양가 등으로 숨죽이고 있던 주택가격이 다시 급등
- 높은 가격과 극도의 거래부진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부동산시장의 스태그플레이션의 현상을 거친 후 붕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부동산 투자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음
  - 현재의 국내 부동산 시장은 지속적인 상승압력과 정책당국의 강력한 행정규제 등 하락압력이 세력 겨누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락압력이 점차 힘을 얻어가고 있음
  - 일부 지역은 2007년까지 국지적인 수급 불안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여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수도권의 공급 물량 증가와 정부 정책 효과의 가시화로 전반적으로는 하향 안정될 것으로 기대됨
  - 수도권과 달리 지방을 중심으로는 미분양주택 물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등 공급우위 현상이 나타남

< 부동산 시장 가격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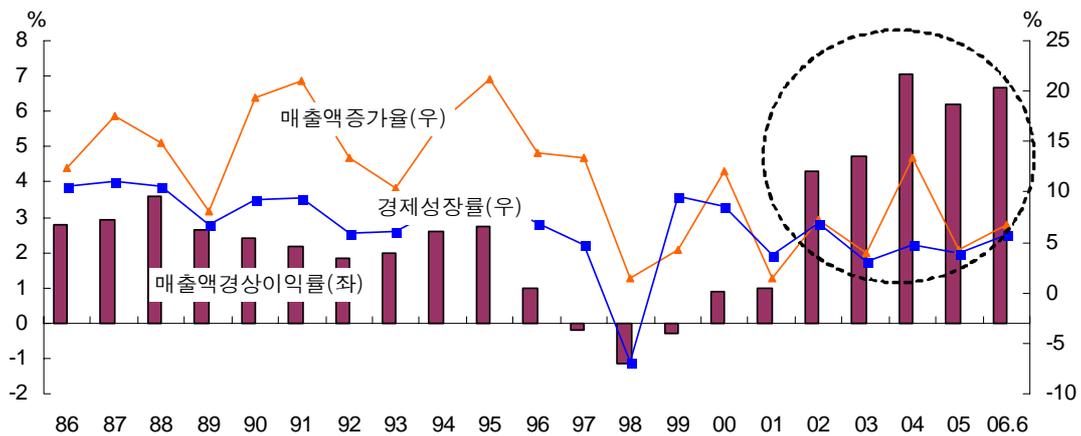
자료 : 국민은행

주 : 강남아파트는 서울을 강남과 강북으로 양분하였을 경우의 강남아파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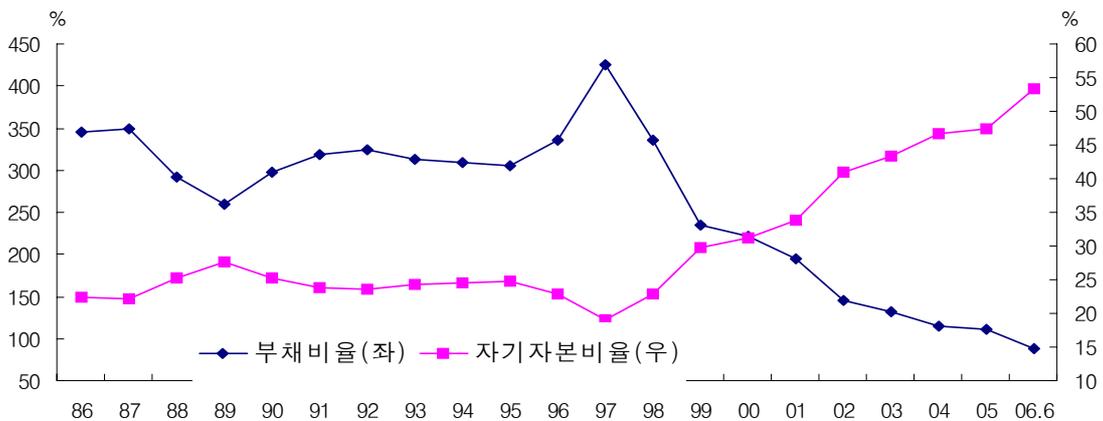
③ 경기와 무관한 기업 경영지표 호조

- 외환위기 이후 국내 경기가 장기 침체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의 실적은 꾸준한 구조조정 등으로 수익성이 크게 높아지고, 재무구조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음
- 경기상황에 따라 기업들의 매출액이 크게 변동하나, 수익성을 나타내는 매출액경상이익률은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
-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100% 이하로 떨어졌으며, 자기자본 비율도 50% 이상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음

< 기업의 수익성 지표 추이 >



< 기업 건전성 지표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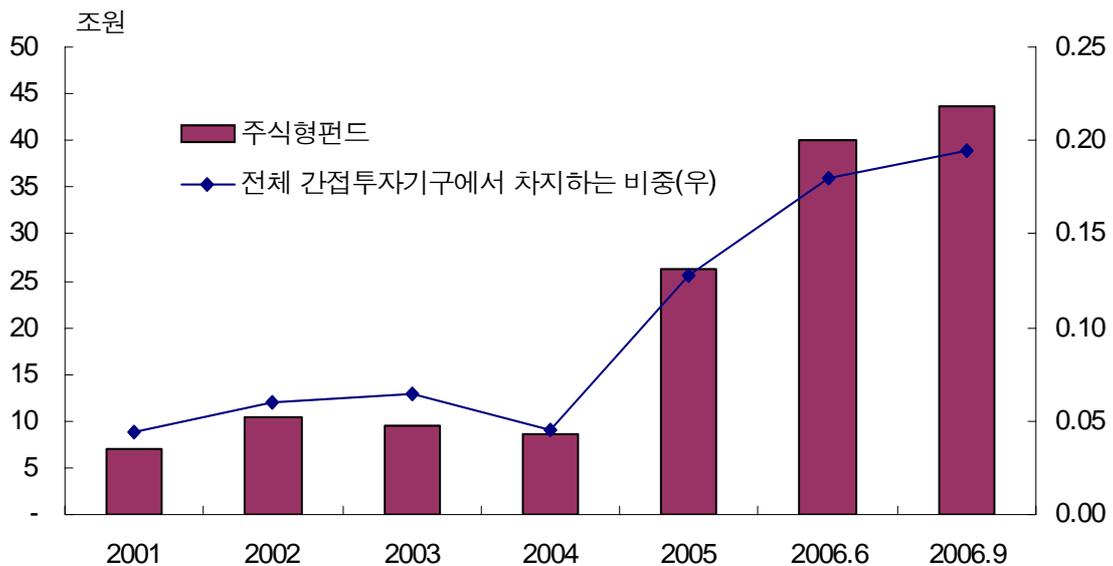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주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자료임. (단, 2006년 상반기의 경우 상장 및 등록업체중 조사 대상 기업들임)

④ 위험자산에 대한 개인의 인식 변화

- 외환위기 이후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지배하던 국내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음
- 일정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위험인수(risk-taking) 자금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즉, 은행 예금으로의 자금유입이 주춤하는 대신, 주식에 투자하는 간접 금융상품에 대한 자금 유입이 견조하게 증가하고 있음
- 투자신탁과 투자회사 등 간접투자기구의 설정액 추이를 보면 주식시장 대기자금 성격의 MMF와 적립식펀드의 호조에 힘입어 주식형펀드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2007년 이후에도 부동산에 대한 위험성이 증가하면서 적립식펀드로의 지속적 자금유입 등이 예상되고 있음
- 국내 경기와 관계없이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본격 이동될 가능성이 큼
- 만일 북핵 문제만 무난히 해결될 경우 시장의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주식시장과 같은 위험자산 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이 가속될 수도 있음

< 주식형 펀드 증가 추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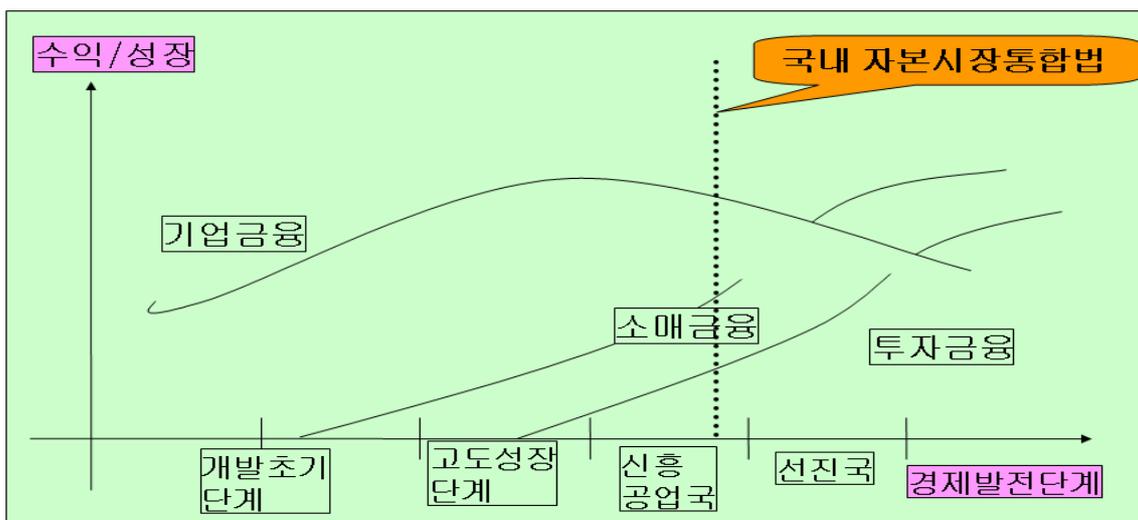


자료 : 자산운용협회

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둔 자본시장 활성화

- 2006년 정기국회에서 자본시장관련 법률을 통합하는 자본시장 통합법(가칭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이 국회 통과될 경우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08년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
  - 정부는 자본시장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도약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투자은행의 육성을 위해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을 추진
  - 증권거래법, 자산운용업법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법을 통합하여 자본시장 규율체 계를 획기적으로 개편
-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금융회사가 은행·보험을 제외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본격 투자은행업 시대가 도래되면서 주식시장을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됨
  - 내부에 일정한 방화벽 요건만 갖춘다면, 하나의 금융투자회사가 은행·보험 상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업 관련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됨
  - 금융투자 상품이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됨으로써 금융투자회사가 이론상 무한대의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되어 다양한 자본시장 상품이 쏟아지면서 시중자금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투자은행 시대의 도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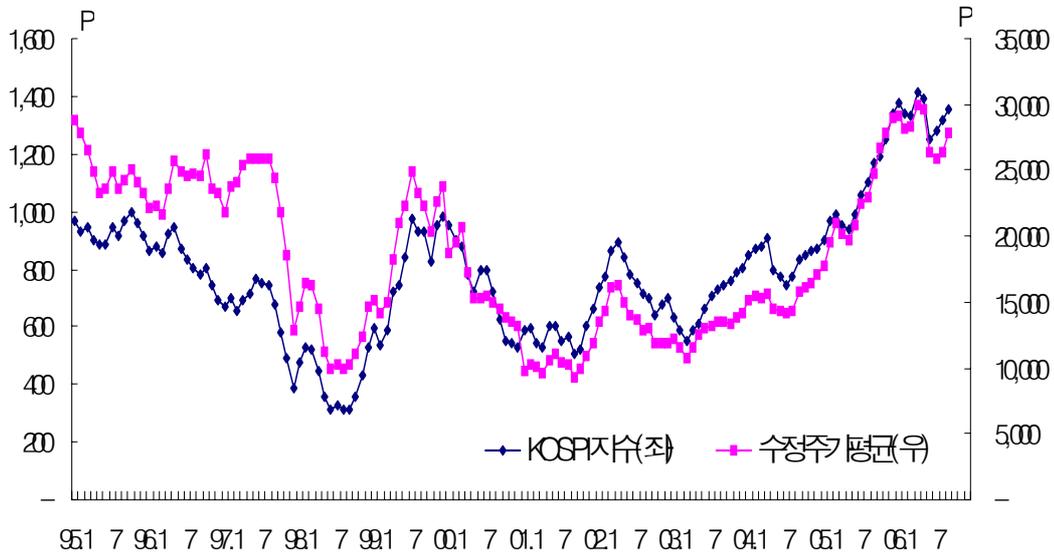
2) 현행 금융업법에는 각 금융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구체적으로 열거(증권거래법 2조, 신탁업법 10조 등)돼 있어 新상품의 범위가 일정함

3. 주가 '대세 상승론' 안착을 위한 정책적 과제

○ 2007년도 국내경제는 전년보다 침체가 예상되고, '북핵사태'의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식시장은 호조를 보일 가능성이 높음

- 비록 예기치 않은 '북핵사태'로 금융시장이 다소 요동을 치고 있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추세를 바꾸어 놓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 현재 국내 증시는 비경제적 외부요인에 대해 내성이 키워진 상태에서 경제 펀드멘탈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국내 KOSPI가 외환위기 전과 비교하여 크게 올랐지만 주가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수정주가평균으로 판단하면 외환위기 전보다 낮은 상태임<sup>3)</sup>
  - '95년 1월 월평균기준 KOSPI가 965.33에서, '06년 9월 1,356.53으로 약 40% 상승한 반면 수정주가평균은 28,800에서 27,832로 오히려 3% 이상 하락함. 이는 국내 주가가 본격 상승하지 않았으며 아직 저평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

< 주가지수 추이 >



자료 : 증권선물거래소

3) 감자, 유·무상 증자에 의한 권리락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권리락 전일의 주가평균과 권리락 당일의 주가평균 사이에 단층이 생기기 때문에 주가평균은 연속성을 잃게 됨. 수정주가평균은 이러한 결점을 없애 주가를 수정하여 주가평균의 연속성을 가지게 한 지수임

- KOSPI가 크게 상승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감자(減資)와 유·무상 증자 등으로 인하여 주가의 연속성을 잃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임 (2002년말 110조 원이었던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장 자본금(=상장주식수×액면가)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5년 하반기에는 80조 원대로 줄어짐)
- 2007년 국내 주식시장은 국내 경제상황과 관계없는 강한 상승세가 가능할 수 있음
  - 최근의 글로벌 주식시장의 호조도 이러한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
  - 만일 북핵 문제만 무난히 해결될 경우 시장의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주식시장과 같은 위험자산 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이 가속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음
- 이러한 주가 상승이 최근 강력히 부상되고 있는 주가의 ‘대세상승론’ 국면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당국의 세심한 정책이 요구되고 있음
- 1980년대 일본과 1990년대 미국 주식시장은 저금리기조, 간접투자문화 정착, 베이비부머들의 자산증식 활동 강화 등의 요인에 의해 전례없는 호황을 누림
  - 미국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1945~1964년도에 출생한 베이비붐세대가 1990년대 이후 40대로 진입하면서 소비주체로 부각되었고, 동시에 노후를 준비하는 주체가 되면서 금융자산 특히 주식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함 (이는 1990년대의 신경제 효과와 더불어 금융자산의 가치상승 현상을 유도함)
- 우리나라도 베이비붐 세대들이 조만간 은퇴에 직면할 시점에서 앞서 본 자본시장 환경이 미·일의 주가의 ‘대세상승기’와 비슷한 경제 환경을 보여주고 있음
  - 미국, 일본 양국 모두 기업의 자본 이익률 급등, 저금리 기조, 제도·경제적 인프라 발달 등의 특징을 지님
  - 단, 부동산의 경우 일본은 주가가 먼저 오르고 2~3년 후 부동산 가격이 올랐으며, 미국의 경우 주가의 대세상승기에 부동산 가격은 비교적 안정되었음

- 미국과 일본의 경제활동인구가 정점에 달했던 시기의 주식시장 시가 총액 규모는 자국 GDP의 1.2~1.3배에 해당되었던 점을 적용하면 KOSPI는 2012년 3,000포인트에 달할 수 있음
- 내년 주식시장이 호황을 보일 경우 정책당국은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이를 '주가 대세상승론'으로 연결시켜 자금의 선순환 구조로 유도하고, 자본시장의 발전시켜 경제 회복으로 연결시킬 필요가 있음
  - 부동산버블의 원인을 잘 파악하여 그에 맞는 대응책으로 부동산 버블의 확대를 차단하고 향후 부동산가격 급락 현상을 피해야 할 것임
  - 개인의 자금이 실제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도록 자본시장 통합법을 예정대로 시행하여 자본시장을 획기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음
  - 과거와 같이 증시 활황기에 기업의 지나친 유상증자 등으로 주식의 초과공급 현상이 발생하여 주식시장의 탄력성을 잃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내국인 주도의 자본시장내 긍정적 자금흐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욕구에 부합하는 금융기관의 신상품 개발 능력을 제고시켜야 함

박덕배 (3669-4009, dbpark@hri.co.kr)

주간 경제 동향

□ 실물 동향 : 착시 효과가 포함된 산업 활동 호조

○ 9월 산업 생산, 소비, 투자 등 대부분의 실물 지표들이 호조세를 나타내었으나, 이는 추석 효과(추석 연휴가 작년의 경우 9월, 올해는 10월에 위치)에 따르는 base effect (기술적 반등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9월 생산, 소비, 투자 등 실물 지표의 강한 상승세 시현 - 9월 산업 생산 증가율은 반도체(전년동월대비 28.1% 증가), 자동차(53.2% 증가) 부문이 호조를 나타냄에 따라, 8월의 10.9%에서 9월에 16.3%로 확대됨

- 또한 설비투자추계 증가율도 같은 기간 11.0%에서 14.7%로 상승하였으며, 건설기성 증가율도 공공과 민간 부문의 동반 호조로 3.4%에서 15.7%로 증가세가 확대됨

착시 효과가 포함된 9월 지표를 근거로 경기 방향성을 예측하는 것은 시기상조 - 이에 따라 동행 지수 및 선행 지수도 8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으나, 북한 핵실험 사건 발발, 逆 base effect 등의 악재가 반영되는 10월 실물 경제 지표까지 확인되어야 경기 방향성을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주요 실물 경제 지표 >

(전년동기대비, %)

		2004	2005			2006						
			연간	2/4	3/4	4/4	1/4	2/4	7월	8월	9월	
경기	경제성장률	4.7	4.0	3.2(1.4)	4.5(1.6)	5.3(1.6)	6.1(1.2)	5.3(0.8)	4.6(0.9)			
	수요	소비재판매	-0.8	3.9	3.4	4.4	6.8	5.0	5.5	-1.3	3.4	4.2
		설비투자추계	1.4	3.2	1.4	1.1	7.0	4.3	4.2	4.1	11.7	14.7
		건설수주	-3.9	9.5	38.5	15.8	-17.9	-9.7	-14.1	7.3	14.9	94.1
	공급	수출	31.0	12.0	9.0	15.4	11.4	10.6	16.9	11.4	17.6	22.1
		산업생산	10.2	6.3	3.5	7.1	10.3	12.0	10.9	4.3	10.6	16.3
		취업자수(만명)	2,256	2,286	2,313	2,303	2,303	2,258	2,341	2,345	2,316	2,330
		실업률(%)	3.7	3.7	3.7	3.6	3.5	3.9	3.4	3.4	3.4	3.2
		수입	25.5	16.4	15.2	21.1	14.6	19.2	19.9	18.4	23.0	22.8
대외 거래	경상수지(억\$)	282	166	26	27	54	-11	7	-4	-6	14	
	무역수지(억\$)	294	232	60	49	61	16	51	4	4	20	
물가	소비자물가	3.6	3.2	3.0	2.3	2.5	2.3	2.4	2.3	2.9	2.4	
	생활물가	4.9	4.1	4.5	3.4	3.4	3.2	3.0	2.9	3.8	3.2	
심리	소비자기대지수	86.5	103.0	97.8	99.1	103.0	103.4	97.4	94.3	93.7	94.8	

주 : 경제성장률의 ( )안은 계절조정 전기비 기준이며, 진한 글자체는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임

□ 금융 동향 : 원/달러 환율 930원대로 하락

○ (해외 금융 시장) 美 경기지표 부진에 따라 글로벌 달러화 약세

미국 경제지표의 부진에 따른 경기둔화 전망으로 금리 소폭 하락

- 금리: 미국 경제지표의 부진에 따른 경기 둔화 전망으로 하락 (국채 10년물 : 4.67 → 4.59%)
- 환율: 미국 경제지표의 부진 및 이에 따라 내년 초 미국 정책금리 인하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글로벌 달러화 약세 (\$/€ : 1.2725→1.2780, ¥/\$:117.60→117.13)

○ (국내 금융 시장) 주가 상승, 원/달러 환율 하락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소식으로 시장 참가자의 투자심리 안정

- 주가: 외국인 투자자의 전기전자업종에 대한 매도 지속에도 불구하고, 실적 호전 기업에 대한 매수세 유입과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따른 투자심리 안정 등으로 대폭 상승 (1,369.1→1,383.8)
- 금리: 최근 채권 가격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과 11월 국고채 물량 축소 예상으로 소폭 하락 (국고채 3년 수익률, 4.66→4.62%)
- 환율: 미국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글로벌 달러화 약세 및 수출업체 달러화 환전 수요 등으로 하락 (947.3→939.0)

○ (전망) 원/달러 환율 하락에 대한 기대감 지속으로 930원대 유지 전망

< 주요 금융 지표 >

		2005			2006				
		2/4	3/4	4/4	1/4	2/4	3/4	10.27.	11.2.
국내	거래소 주가	1,008.2	1,221.0	1,379.4	1,359.6	1,295.2	1,371.4	1369.1	<b>1,383.8</b>
	국고채3년(%)	4.02	4.60	5.08	4.93	4.92	4.57	4.66	<b>4.62</b>
	원/달러	1,025.4	1,041.1	1,011.6	971.6	948.9	946.2	947.3	<b>939.0</b>
해외	DOW	10,275	10,569	10,718	11,109	11,150	11,679	12,086	<b>12,018</b>
	Nikkei	11,584	13,574	16,111	17,060	15,505	16,128	16,669	<b>16,350</b>
	미국채10년(%)	3.91	4.32	4.39	4.85	5.14	4.63	4.67	<b>4.59</b>
	일본채10년(%)	1.17	1.48	1.48	1.78	1.93	1.68	1.73	<b>1.72</b>
	달러/유로	1.2108	1.2026	1.1849	1.2118	1.2790	1.2674	1.2725	<b>1.2780</b>
	엔/달러	110.92	113.51	117.75	117.78	114.42	118.18	117.60	<b>117.13</b>
	두바이(\$/배럴)	52.09	56.32	53.19	59.16	67.17	57.33	56.50	<b>56.22</b>

주 : 해외 지표는 전일 기준임